

速記界

第 26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速記界

1986—26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권두언〉

- 記錄報國의 使命感으로.....會長 朴權欽 • 4
 보dana은 내일을 위하여.....理事長 申世華 • 6

—특별기고—

- 국회속기사와 출입기자.....李敬在 • 8

〈시〉

- 봄의 葉信.....權龍太 • 11

—제36차 인터스테노총회 보고—

- 환영사.....토들 즈비코브 • 14
 '88서울올림픽에서 만납시다.....박권홍 • 15
 참관기.....김주성 • 16
 총회일지.....20

다시보는 速記錄 ③

—大韓民國憲法公佈式—

-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行하는 일이.....24

—元老에게 듣는 速記이야기—

立議2年.....姜駿遠 • 28

—論 壇—

速記業務의 自動化方案.....金基英 • 32

— 수 필 —

弁 하나(I).....金銅洙 • 40

40년만의 재도전.....金容漢 • 41

夜光虫.....安基喆 • 44

올챙이 속기사의 한마디.....李在鉉 • 45

내가 택한 길.....崔允禎 • 46

속기계 이모저모.....섭외부 • 48

회무일지.....50

편집후기.....51

題字 ; 海汀朴泰俊

表紙그림 ; 月下情人(蕙園 申潤福, 조선왕조시대)

〈권 두 언〉

記錄報國의 使命感으로



會長 朴 權 欽

다사다난했던 을축년이 가고 희망에 찬 병인년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國際적으로 地震 火山暴發 등의 各種 天災地變도 있었고 經濟적으로는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保護貿易障壁과 開發途上國에 대한 市場開放壓力이 거세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안 사정으로 눈을 돌려보면 政治 經濟 社會 등 각방면에 걸쳐 그리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한 예로 世界經濟의 沈滯로 인한 失業問題의 深化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油價의 급격한 下落, 恩貨의 暴騰 등의 덕으로 輸出이 다소 늘어가기 시작하고 國內景氣도 차츰 회복되어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시다마는 모든 國家活動의 基本이 되고 推進力의 核이 되는 正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중요한 民族的 前進의 分水嶺인 80年代 中盤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영광된 祖國을 後孫에 물려줄 각오를 새롭게 다짐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會員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올해에는 서울에서 86아시안 게임을 치러야 하고 다가오는 88년에는 올림픽게임을 主催해야 하는 중차대한 時點에 들어 서 있습니다. 우리 速記人들이야 올림픽과는 무관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시다마는 어 舉國의 行事に 우리가 參與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速記人들은 언제인가는 이 큰 行事的 시작부터 끝까지의 狀況을 記錄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史官으로서의 말은 바 所任을 다하는 데 전력을 경주함이

우리 速記人들이야 올림픽과는 무관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速記人들은 언제인가는 이 큰 行事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狀況을 記錄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速記人 모두가 이 두개의 큰 行事를 開催하는 나라의 市民으로서 또한 主人으로서의 자세를 항상 갖추어 한국의 밝고 튼튼한 모습을 世界人에게 보여주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 世界는 地球村이라는 말이 示唆하듯이 좁아지고 있고 世界로 문을 활짝 연 우리는 이미 國際化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1983年 速記人의 世界機構인 인터스테노에 가입했고 昨年에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第36次 인터스테노 總會에 參加하였습니다. 또 올해에는 벨지움의 브뤼게에서 열리는 中央委員會에 本人이 參加할 예정입니다마는 國際速記文化와 우리의 한글速記文化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速記文化水準이 世界水準에 비해 여러면에서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速記文化의 落後性を 빠른 시일안에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速記文化國家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速記人口의 低邊擴大를 위한 冬·夏季 無料講習, 速記技術의 研究開發, 速記市場의 開拓 등을 持續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支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고 올해에는 速記文化의 成長發展을 위한 政府의 支援을 받을 수 있는 方案을 적극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制憲 以來 記錄報國의 使命을 떠고 묵묵히 지금까지 일해온 速記人 여러분!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俗談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것이 더 빠르고 能率的이며 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本人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史官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本協會의 발전이 곧 會員 各自의 발전임을 믿고 모든 協會의 事業과 活動에 적극 參與하고 協力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86年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의 원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국회문교공보위원장)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理事長 申 世 華

옛말에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이란 세월이면 江山이 변할 정도이니 그 江山에 터잡고 살아가는 人間事의 變化야 얼마나 심하겠는가? 게다가 “人心은 朝夕變”이라고도 했으니 이 두가지 옛말을 함께 생각해 보면 10년이라면 人間事는 변하고 또 변하기를 수 없이 거듭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변화가 적은 옛날의 말이 이러하건대 요즘같이 격변하는 현대에 와서는 1년만 지나도 江山이 금방 금방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速記도 先進 몇 個國에서는 手筆速記와 機械速記가 混合하여 變化와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現代, 특히 先進國隊列의 문턱에서 2,000년대의 先進國으로 發展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80年代에 들어서면서 協會理事長이라는 重任을 本人이 맡은 지 벌써 5년이 넘어 6년째 접어든다.

그간 수없는 변화를 체험해왔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速記人은 家族的인 분위기속에서 다져진 결속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各自 職場에서 맡은 業務를 充實히 하여 왔으며 協會事業을 잘 해결해 나왔다. 이 家族的인 분위기는 비슷한 與件下에서 速記를 배웠고 많은 競爭者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했고 또한 全國의으로 얼마 되지 않는 特殊職業人이라는 등의 同質性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先後輩間에 서로 형제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日常生活 속에서 具體化되어 그 結束力을 끊임 없이 다져왔다. 우리 速記人은 이와같은 結束力과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記錄報國의 使命을 다해 왔음은 물론 速記 이외의 業務遂行時에도 速記를 활용하여 그 效率性 提高에 노

력하여 왔음은 速記人들의 자랑이요 긍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速記人들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많기만 하다. 우리의 弘報 노력의 부족에 기인한 탓인지 一般人들의 速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바 이러한 速記에 대한 一般人的 認識改善을 위한 弘報對策, 速記人들의 社會的 地位向上을 위한 스스로의 資質向上問題, 尖端技術을 이용한 速記業務의 向上改善問題, 速記教育의 革新, 速記需要處開發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하면서 理事長의 입장에서조차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누가 해결하고 헤쳐 나가야 할 문제들인가? 우리 速記人 모두의 문제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문제에 억눌려 速記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아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積極的이고 肯定的인 思考方式을 갖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 速記를 모르는 이들에게 速記人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自己發展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最高 絶對者의 우리다운 표현이 하늘이고 한울님이다. 이러한 絶對的인 存在가 스스로 노력하면 돕는다는 絶對條件附 約束을 믿고 우리 速記人들은 남이 할 수 없는 速記를 할 줄 안다는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速記界의 발전을 위한 대열에 모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協會의 발전이 곧 會員 각자의 발전이며, 會員 각자의 발전이 곧 協會의 발전이라는 보다 강한 連帶感과 共同體意識 속에서 「하면 된다」는 肯定的인 信念을 가지고 우리앞에 놓인 難題들에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速記文化發展을 위해 보다 나은 來日을 창조할 役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체에 理事長으로서 會員 각자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속기사와 출입기자

李 敬 在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내가 국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약 15년전의 일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1971년 10월 2일이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할 만한 이른바 「吳致成波動」 또는 「10·2 抗命波動」이 있던 바로 그날이다. 정치부의 수습기자로 생전 처음 국회에 견학을 나온 바로 그날 抗命波動의 현장을 목격하는 「행운」을 차지하게 됐다. 아니 「행운」이라기보다 10여년 헌정사의 격랑에 휘말려들게 된 불행의 시발이었다.

내가 언론계를 떠난 후 옛 국회의사당이었던 태평로의 세종문화회관별관이나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옆을 지나칠 때면 10여년의 의사당 생활이 그리운 추억으로 머리를 스치곤 했다. 그러나 속기사에 관한 생각나는 추억은 거의 없었다.

의정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원내발언을 함께 듣고 함께 기록하는 어찌 보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직업인들끼리 한 장

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어찌 그리 기억에 남는 관계가 없었는지 이상스러울 정도이다.

내가 속기사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84년 8월 다시 언론계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다. 나는 옛날 그 부서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출판국에서 월간지에 정치비화를 기고하는 입장이 됐다.

정치현장을 뛰었던 나로서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치비화를 많이도 썼다. 아마도 85년도는 정치비화의 전성기로 월간지의 붐을 이룬 한 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독자로부터 받은 가장 많은 질문은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현역기자 시절 모든 자료를 모아두거나 메모해 둔 것들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먼훗날 정치비화를 쓰기 위해 미리부터 자료를 준비해둘 만큼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과거 정치적 사건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나는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첫째는 신문 잡지의 스크랩, 둘째는 당사자들의 회고록이나 증언, 세번째로 국회속기록 활용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속기록은 내게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어떤 정치적 사건을 추적하다보면 국회 속기록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자료의 寶庫가 된다. 내가 지난해 신동아 10월호부터 4회 연재한 「維新 쿠데타의 幕後」는 국회속기록에 힘입은 바 크다. 평소 국회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가볍게 들어 넘겼던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이 먼 훗날 역사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케 됐다. 어떤 정치적 사건을 전후하여 신문 잡지 방송에서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은 九牛一毛에 불과한 것이다. 기자와 데스크와 편집자의 편견에 의해서 수많은 소재 가운데 극히 일부뿐만 지면에 반영될 뿐이다. 때에 따라서는 질량과 표현면에 최초의 발언과 크게 거리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국회속기록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필자가 국회속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새삼 인식하게 된 것도 이때문이다. 이조실록은 사관들에 의해 기록보존됨으로써 현대의 역사 기술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속기록도 이조실록에 비견할 만하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이조실

록은 특정한 사관의 편견에 의해 사실의 왜곡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속기록만은 그 속기의 본뜻처럼 발언내용 그대로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사실의 기록만은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발언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속기사가 훌륭한 회의록을 만들어 내야 기록 당시의 발언자의 주장이나 사상을 널리 전달하는 매체가 되고 후세에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발언의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속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속기사는 현대의 사관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신문기자와 역사가들도 현실을 기록하여 후세의 사료를 남긴다는 점에서 국회속기사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속기사와 다른 점은 신문기자나 역사가들은 어떤 관점 어떤 사상 어떤 가치를 갖고 현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회발언 그대로를 기록하는 속기사와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속기사에겐 객관적 기술이 생명인 것이다.

속기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속기사이다. 최초발언이 그의 머리속에 들어갔다가 여파를 거쳐 나온다. 따라서 속기사는 우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발언자들은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다. 외교 과학 어느 한 분야 다루

지 않는 것이 없다. 생소한 용어 전문적인 용어 첨단 용어가 나올 수 있다. 녹음테이프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나 고문자 합성어 등의 난해한 용어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자에는 同音異義語가 적지 않다. 이같은 용어를 제대로 속기하려면 발언내용의 문맥을 파악해야 하고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요구한다. 신문기자도 국회발언은 듣다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럴 때면 발언자의 원고를 빌려보거나 본인에게 다시 확인한다. 속기사 또한 발언자의 발음을 그대로 기호로 옮겨놓는 무의식적 작업만으로는 완벽한 속기를 할 수 없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면서 옮겨야 제대로 된 속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속기사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해박한 지식인이 돼야 한다.

85년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열렸던 Intersteno 총회에 다녀온 어떤 속기사의 말에 따르면 그 곳에 참가한 외국 속기인들의 상당수가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었다고 한다. 지난 번 한국에서 열렸던 IPU 총회에 다녀갔던 속기사 한 명은 영국의회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신문 기자 출신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속기사 한 분이 영국에 간 길에 그의 집에 들렸더니 서재에 책이 산같이 쌓여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정도였다고 한다. 신문기자의 신분을 버리고 속

기사를 택할 만큼 속기사의 신분이 우대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도 해방후 최초로 입법 의원이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속기사는 속기수당 등 특별 대우를 받았었다.

오늘날 속기사에 대한 대우는 일반 반직 공무원 수준과 같지만 그것은 속기사의 가치를 단순히 기능인만 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회인들의 그릇된 편견이 주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속기사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 속기인 자신이 기능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안주하려 들거나 다른 위치로 전신하기 위한 일시적 징검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기인은 스스로의 벽을 헐고 꾸준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독서를 늘리고 사회전문을 넓히고 자신을 깊이 연마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측에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재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설 속기교육기관을 두어 공인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속기사 자격의 격을 높여 속기사의 사회적 신분을 辯護士 計理士 등 「士」字 반열에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

〈詩〉

봄의 葉信

權 龍 太 (회원)

봄들에
햇살이 모이는 3월엔
적조하게 지냈던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띄우는게 멋이네.

목은 버루에
墨을 갈고
古典의 어투로
무슨 안부부터 물을까.

俗塵으로 매문은
나의 서울生活.
먼지 털듯 털어놓고
三冬을 지난
고향 사람들의 소식이나
물을까.
때로는 봄의 渴症을
콜라 한잔으로 달래며
아무리 살아 보아도
흙범벅이 된 내 구두

마음은 언제나
고향 언덕에 머물고 있네.



(국회문공위원회심의관)

청량 동 방 속 기 학 원 ☎ 965-8222 · 8223

*** 40년 전통의 동방법식**

- 쾌적한 교육환경 성의있는 명강의
- 속기사 국가기술자격 시험방식 강의

국어속기반

본 과정—4개월

1급과정—1년

영어속기반

본 과정—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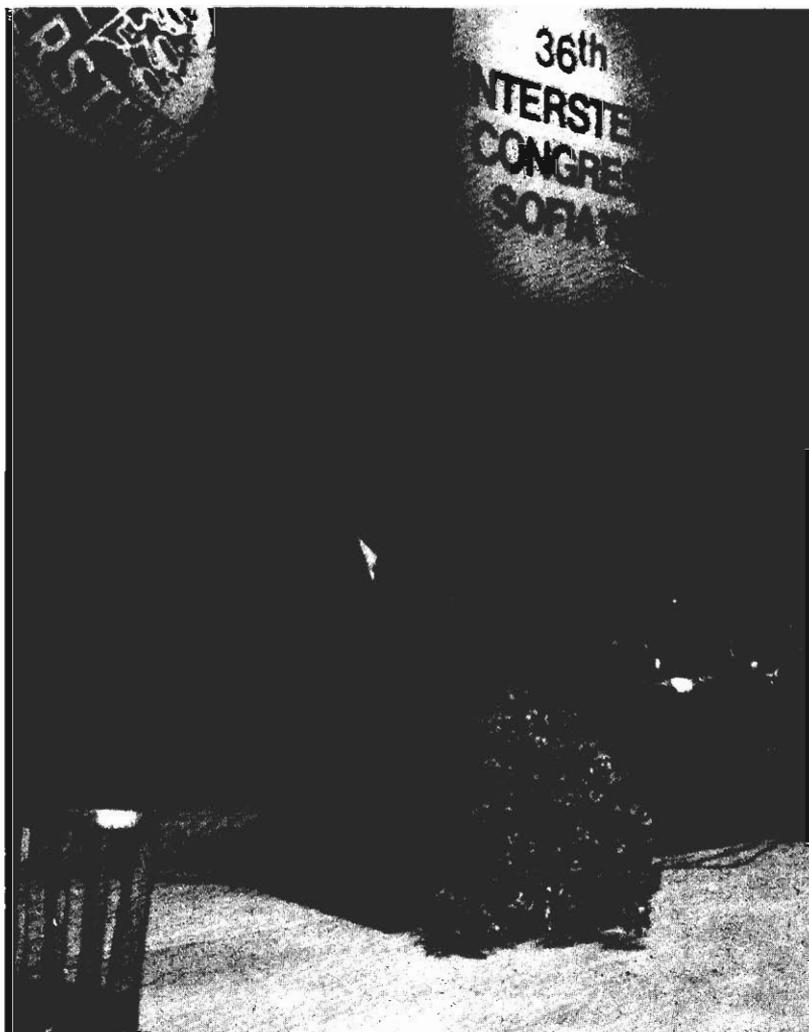
1급과정—6개월

수료 후

국회, 법원, 각 관공서, 각 언론기관, 각군 속기병, 외국인
상사, 유학시의 필기 및 아르바이트 등 고급 취직으로 사회진출
용의.

제36차

인터스테노 총회보고





환 영 사

토들 즈비코브
(불가리아 평의회회장)

속기를 사용하여 연설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여 기록하는 것은 역동적인 현세기에 있어 매우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36차 인터스테노의 후원자로서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본인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터스테노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제적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수필속기와 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외에 최근에 과학기술혁명의 급속한 발전과 눈부신 성공에 힘입어 이 분야의 새로운 추세에 더욱 큰 관심을 쏟는 것은 꼭 고무적인 일입니다.

속기를 사용하여 연설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역동적인 현 세기에 있어 매우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은 사회관리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속기 타자 비서업무를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으며 그 업무를 높이 평가합니다.

불가리아는 속기 타자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훈련과 그들에게 현대적 기기의 제공 그리고 지구상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에 불가리아 국민이 더욱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속기 타자 선수 전원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인터스테노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표합니다.

조지 드미트로브의 고국인 불가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평화를 위해 속기 타자 비서업무의 수준을 높이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빕니다.

(註: 불가리아 평의회의장은 실질적 국가원수임)

'88서울올림픽에서 만납시다.

박 권 흠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 곳 소피아에서 한국속기협회를 대표해서 연설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국회문교공보위원장으로 이와 같은 문화적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대회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조직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불가리아 정부에 감사합니다.

지난 83년도 루체른대회에서 한국이 가입되고 또 본인을 중앙위원으로 선출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리아가 속기분야, 특히 기제속기와 사무자동화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데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도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서 여러분을 특별히 환영할 것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서 여러분을 특별히 환영할 것입니다.

제36차 인터스테노 참관기

김 주 성

(외국어 부장)

85년 7월 12일, 스위스 슈리히.

어제 밤 호텔측에 부탁해 두었던 모닝·콜 덕택으로 5시 30분에 일어났다. 서울을 떠나 이곳에 머문 것이 벌써 사흘 째였다.

첫 해외여행에, 회장이신 박권흥 문공위원장님의 수행까지 하다보니 본시 아둔한 본인인지라 긴장과 실수의 쌍곡선이 몇 번씩이나 교차되었었는데, 이제야 좀 많이 익숙해진 것같았다. 특히 불가리아 입국 비자관계로 슈리히에서 베른까지 혼자 열차여행을 하고 난 후로는 자신감도 조금 생겼다. 스위스주재 안재석대사님과 박노벽 부영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걱정되던 비자도 얻어냈고 해서 한숨을 놓았는데 막상 오늘 공산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웬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

KAL의 홍소장님의 안내로 슈리히공항에서 Swiss Air를 탔다. DC-9기종인데 이곳에 올때 탔던

KAL의 Boing 747에 비하면 장난감같이 예쁘장하였다.

알프스산맥을 넘어 두 시간만에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영어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내심 걱정했었는데 공항 안내판에 불가리아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안심되었다. 공항에 인터스테노측 가이드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개 국가별로 한 명 정도의 가이드가 배정되어 통역과 안내를 하는데 대부분이 소피아대학의 3, 4학년 남녀 학생들로서 외모가 단정하고 통역에 능통하였다. 우리측 가이드는 역시 소피아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는 「안토니아」라는 아가씨였다.

준비된 셔틀버스로 행사장인 인민문화궁전(People's Culture Palace)으로 가서 수속을 밟았다. 80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국제회의 대집회 등을 위한 초현대식 건물인데

7,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올 가을에 UNESCO 총회가 이곳에
서 개최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이튿날 문화궁전에서 33개국의
대표 및 선수 약 760명과 불가리아
일반관중 약 3,000명이 운집한 가
운데 개회식이 성대히 열렸다. 개
회식에 앞서 불가리아 소년 소녀들
의 불가리아 전통무용발레 등이 공
연되었다. 개회식은 이번 대회 조
직위원장인 「파파조브」 불가리아
국가평의회위원의 환영사와 불가리
아 속기협회 회장인 「츠베츠코프」
의 축사로 시작되어 중앙위원들의
각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이 있었다.
박회장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먼저
한국속기문화의 소개와 진보된 불
가리아 기계속기분야를 치하했으며
특히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

원으로서 88년에 여러분들을 서울
에서 따뜻하게 환영하겠다는 대목
에 가서는 대회장을 가득 메운 박
수가 터져 나왔다. 이 기조연설은
각국의 고유언어로 연설되어지고
각기 영어 독어 불어 불가리아어로
동시통역이 되었는데 장내를 압도
하는 박회장님의 한국어가 낭랑하
게 울려 퍼질 때 그렇게 가슴이 뿌
듯했음을 그 누가 짐작할 수 있을
까?

이번 대회의 가장 흥미있는 행사
중의 하나인 속기경연대회는 문화
궁전 근처의 학교에서 개최되었는
데 지난 번 스위스 루체른 대회와
는 달리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경연대회에 참관할 수
가 없었다. 이번 대회에는 15개국
으로부터 148명의 선수가 참가했는



소피아市長 주최 리셉션에서 지오바니 파라레로 신임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데 사용된 언어는 12개였다. 심사위원장인 「힐머트 해넬」(동독)씨는 이번 시험문제가 지난 번 「루체른」대회보다 어려워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귀찮을 해주었다.

속기경연대회는 모국어경기대회와 多國語경기대회(Multilingual)로 나뉘어지고 다시 전문(A 그룹)과 비전문(B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모국어 A 그룹은 10분간 낭독되었으며 속도는 분당 168단어로 시작되어 계속 가속적으로 빨라져서 마지막 10분에는 분당 296단어로 진행되었다. 이것을 영어의 syllable(음절)로 계산해 보니까 약 275음절에서 500음절이나 되어서 우리와 세계수준과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 부문에서 지난 대회에 무실점이라는 신화적 기록으로 챔피언이 되었던 이태리의 「리로」박사는 이번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불가리아의 「아니 암자노바」양이 우승을 차지했다. 비전문그룹인 B 그룹은 109단어에서 190단어의 속도로 8분간 낭독되었는데(번문시간 3시간) 이 부문에서는 헝가리의 「에리카 카냐」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서 다음날 열린 다국어경기대회는 전날 열린 모국어경기대회의 A·B 그룹에서 합격판정을 받은(Qualified)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 경기대회는 분당 100단

어의 일정한 속도로 3분간 낭독되는 것인데 속기실력보다도 외국어 실력의 비중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 싶었다. 이번의 챔피언은 동독의 자유속기사(Freelance reporter)인 「맨프레드 캐러」씨로 독어 불가리아어 영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슬로바키아어 체코어 이상 7개 국어 부문에서 합격하였고 2위는 스위스의 「인글린」씨로, 현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그는 속기를 취미로 배웠다는데, 그도 역시 7개 국어부분(독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불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서반아어)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7개 국어를 알기도 힘들겠거니와 그 속기법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해서 네덜란드 대표인 「위텐 보가드」씨에게 물어보았더니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의 「알파벳」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속기법식을 알면 소위 변용(Adaptation)방식을 통해 다른 언어로 속기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실제로 노트에 써가면서 가르쳐 주었다.

불가리아에 머무는 동안 인터스테노의 개회식과 각종 경연대회 및 행사가 연일 주요 일간지나 TV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수준이 세계수준에 비해 스피드 정확도 외국어능력 기계속기분야 등에서 처져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빨리 보강되어서 우리도 실제 선수단이 참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깊이 느꼈다.

소피아시장만찬, 불가리아 체육부차관방문 등 바쁜 여정을 마치고, 박회장님은 국내일정 관계로 먼저 귀국하셨다. 나는 혼자 남아 속기타자관계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나머지 일정에 계속 참가하였다.

7월 19일 출국날 새벽, 흑해여행은 너무나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소피아 근교에 있는 비토샤山(해발2,300m가 넘는 불가리아 최고봉)을 가이드와 함께 갔다. 그네처럼 생긴 2인용 케이블카로 약 40분 정도 올라가서 정상 바로 아래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주위에 아무도 없어 사방이 고요하고 광활한 고지대위에서 있자니 인간이 오지 못할 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하긴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

본 곳이 대청봉 1,700m밖에 안되니 그럴 법도 했다. 자연이 극치에 이르면 신비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神性을 보는 듯했다. 능선 밑으로 아득하게 보이는 소피아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한기를 느꼈다. 고산지대여서 그런지 산밑과 너무나 기온이 달랐다. 서둘러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다. 뻑뻑히 들어선 이름모를 나무들 위로 혹은 옆으로 나는 비행하고 있었다. 햇빛은 나뭇숲 사이를 비집고 크고 작은 나뭇잎 위에서 파도처럼 반사되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혼쾌하여 소위 자아도취에 빠졌던 모양이었다. 옆의 가이드도 의식치 못하고 「동녘의 빛」을 냅다 불러냈다. 淸靜한 上空을 그야말로 푸르른 나의 한국말 노래가 널리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 會 告 -

速記人 住所錄 發刊

當 協會에서 速記人住所錄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漏落된 분이 나
名表記上에 錯誤가 있는 분 그리고 85年 12月 以後 住所가 變更된 분은 訂
正信講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連絡處 協會 渉外部 Tel: 7802-2475, 정주현

제36차 인터스테노

총 회 일 지

1. 기 간 : 1985. 7. 13-7. 19
2. 장 소 :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회의 센터 (루드미라 지브코바 문화궁전)
3. 한국측 대표
 - 박 권 흠 (국회 문교공보위원장, 대한속기협회회장)
 - 김 주 성 (대한속기협회 외국어부장)
4. 참가국 및 인원
 - 33개국 (동구권 6개국, 중립국 1개국, 서방권 26개국) 760명
5. 중앙위원회 주요회의 내용
 - 1) 차기 중앙위원회 개최국 및 시기
 - 벨기에 브뤼지 (1986. 5)
 - 2) 차기 연맹총회 개최국 및 시기
 - 이탈리아 프로렌스 (1987. 7)
 - 3) 새회장 선출
 - 이탈리아, 지오바니 파나레로 (1986. 1-1987. 12)
 - 4) 새 중앙위원 선출
 - 박권흠 위원장 외 14인 선출
 - 5) 사무총장 구출러 박사(서독) 유임
 - 6) 인도네시아 개인회원국으로 가입
6. 주요 활동 사항
 - 1) 7월 13일
 - 총회 개최식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약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림.
 - 불가리아 국가평의회 의원이며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나초 파파조브는 개최식 환영사에서 속기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번 대회를 통해 큰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희망.
 - 이 개최식에서 24개 회원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박권흠 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일행에 대한 불가리아의 환대와 친절함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불가리아의 기계속기분야의 독

창성과 우수성을 치하했으며, 한국의 속기현황과 88서울올림픽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큰 환영을 받았음.

- 개회식에 이어 알렉산더 폴 불가리아 문교부장관 주최로 열린 만찬석상에서 박위원장은 문교부장관과 한국의 실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은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극찬하고 남북한의 대화노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2) 7월 14일

(1) 불가리아측 STENOKEY (자동번문기) 생산담당자와 만나 STENOKEY에 한국어 적용여부를 타진한바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분석됨.

(2) 세계 타자경기 대회(17개국 180명 선수참가)

(가) 전동타자

○속도부분: 가브리엘 모나스(서독) 우승

분당 712타, 14실점(3연패)

경기시간: 30분

○정확도 부문: 가브리엘 모나스(서독) 우승

분당 649타, 1실점

경기시간: 10분

(나) 수동타자

○속도부분: 싱 레진디박사

(인도) 우승

분당 96.6단어 4실점

○정확도 부문: 코바 미로스라브(체코) 우승

분당 93.8단어 무실점

3) 7월 15일

(1) 피터 메르도르츠키 소피아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

소피아시장 및 고위 공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실정과 88서울올림픽을 홍보함.

(2) 니콜리안 안도노브 불가리아 체육부차관을 공식 방문 약 50분간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6.23선언 이후 대외 문호개방정책을 설명하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데 상호 의견일치를 봄.

불가리아측은 그들의 스포츠 분야 전반에 걸쳐 상세히 브리핑한 후, 88서울 올림픽에 적극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며 이를 위해 선수들이 강훈련중에 있다고 밝힘.

또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차기 동계올림픽을 개최키 위해 그들의 장점(개최지가 수도, 한번도 올림픽을 주최하지 않았음)을 선전하면서, 박위원장에게 한국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차기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3) 세계 속기 경기대회(15개국, 148명 선수참가)

가. 모국어 부문

ㄱ. 전문(A그룹)부문

속도 : 분당 168단어 - 296

단어, 경기시간 10분

번문시간 : 4시간

○기계속기 : 크라우디오

토시(불가리아) 우승

○수필속기 : 아니 암자노

바(불가리아) 우승

ㄴ. 비전문(B그룹)부문

속도 : 분당 109 ~ 190단

어, 경기시간 8분

번문시간 : 3시간

○수필속기 : 에리카 카나

(헝가리) 우승

나. 다국어(multilingual)부문

속도 : 분당 100단어, 경기시간 3분

우승 : 맨프레드 케너(동독, 7개국어 합격)

4) 7월 16일

(1) 불가리아 국회틀 예방.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환영인사와 불가리아 의회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박위원장은 부의장과 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대외입장과 국회실정, 88서울올림픽에 대해 설명하였음.

5) 7월 17일

(1) 1차 총회 : 연구논문발표(속

기의 이론과 실제)

○ 현대 오피스에서의 속기의 역할과 속기교육의 영향 : 윌리엄 보네트(스위스)

○ 속기의 가치와 그 진흥책 : 딘 스테크(스위스)

○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따른 속기의 변화 : 베스린츠 베츠코브(불가리아)

○ 타이프라이터 기준의 국제적 비교 : 프리드리히 바움갈트너(오스트리아)

○ 전자타이프라이터의 발달의 현재의 수준 : 대니 데브론트(벨기에)

(2) 2차 총회 : 연구논문발표(의회·법원속기)

○ 의회속기록 작성의 자동화 작업 : 페르디난도 파비(이태리)

○ 공식적 속기 기록중 방해적 요소의 처리방법 : 울프강 벵(서독)

○ 일본 속기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수단 : 젠이치 다구사리(일본)

○ 법원에 있어서 속기의 사용 : 엘리스 스위니(미국)

6) 7월 18일

(1) 3차 총회 : 연구논문발표(속기 및 타자의 강사의 문제와 사무관리)

○ 공공 또는 개인교육에 있어

비서과목 : 렌조 만카리(이태리)

○프랑스에 있어서 간편화된 속기 시스템 : 찰즈 라마드 (프랑스)

○속기와 데이터 처리 : 로버트 메랑그(프랑스)

○속기교육의 언어학상의 문제 : 브래드미르 고르브스키(불가리아)

(2) 전체총회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수정없이 통과

○경기대회 성적 우수자 시상

○폐회식

7. 성 과

- 1) 속기 및 사무자동화 부문에 관한 최근의 정보교환 및 의회속기 제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 청취
- 2) 한국의 속기제도를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어의 과학성 및 우수성을 대회를 통해 선양키 위한 기반 조성
- 3) 민간의교(특히 동구권)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특히 남북한의 정확한 정책노선과 북한의 세습제 및 1인 독재체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전달함.
- 4) 개회식 기조연설, 주요인사면담, 회원간의 개인적인 대화, 기

념품 증정 등을 통해 한국의 88 서울 올림픽을 세계에 크게 홍보 시킴.

8. 기타사항

이번 주최국인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최근 문교부와 기계제작부의 협찬과 과학기술 개발 국가위원회의 지도하에, 기계속기 다국어속기 문서처리 사무자동화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번 총회에 대해서도 실질적 국가원수이며 국가평의회 의장인 토들지브코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였고, 조직위원장에 국가평의회 위원인 나초 파파조프, 그리고 운영위원장에 문교부장관인 알렉산더 풀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불가리아의 속기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국가적인 관심이 세계 최초로 STENOKEY를 제작 실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되었음.

9. 건의사항

이번 총회에 대부분의 국가가 국고 보조를 받아 참석하고 있었으며, 속기문화의 창달과 민간의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측도 국가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청됨.

—大韓民國憲法公布式—

이날 이 때에 우리가 여기서 行하는 일이

1948년 5월 31일 개원식을 거행한 국회는 그 다음날(6월 1일) 제 2 차 본회의에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명과 국회법기초위원 15명을 선거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인씩)을 선출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와 「국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먼저 당시 사법부 법조계 교육계 등 각계 권위자인 兪鎭午·權承烈·尹吉重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한 다음 4일부터 유진오 전문위원이 입안한 초안(내각책임제·양원제·3권분립)을 중심으로 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 金炳魯)의 헌법초안, 임시정부헌장, 民主議院에서 제정한 임시헌장, 立法議院에서 제정된 約憲 및 구미각국의 헌법을 參考案으로 하여 기초에 착수, 「내각책임제는 비민주적」이라는 李承晚박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6월12일 양원제를 단원제로 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한 내각책임제헌법안을 이의 없이 채택했다.

그러나 6월 15일 동 기초위원회에 출석한 이승만의장은 분개한 어조로 내각책임제의 부당성

—一般 男女가 各各 이 憲法에 對한 自己職責을 다함으로 自己도 法을 違反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法을 違反하는 사람이 없도록 努力할진대, 우리 全民族뿐 아니라 우리 後世子孫이 같은 自由福利를 누릴 것이니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行하는 일이 永遠한 記念日이 될 것을 證明하여 人民이 各各 마음으로 宣誓하여 잊지 말기를 付託합니다.—

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중심제로 번안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는 건국 기초작업이 일단 매듭을 진 다음에도 결코 늦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측근을 통하여 국회가 내각책임제 제헌을 강행한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등 은근한 위협을 가했다. 이러한 李의장의 주장은, 李의장을 제외한 정치문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당시의 정치상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더불어 당시 유일한 정당인 韓民黨이 당초의 내각책임제 주장을 굽히고 李의장의 주장을 따름으로써 6월 22일 제17차 기초위원회에서는 마침내 내각책임제 헌법안을 대통령중심제 헌법안으로 번안하기에 이르렀고, 6월23일 제1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일간 12차에 걸친 토의 결과, 7월 12일 12시 28분 제3 독회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헌법은 제정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해 7월 17일 드디어 역사적인 서명·공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檀記四二八一年七月十七日(金)

公布式 節次

- 一. 開會辭(事務總長)
- 二. 奏樂(高麗交響樂團)
- 三. 愛國歌奉唱
- 四. 國旗에 向하야 敬禮
- 五. 殉國先烈에 對하야 默念
- 六. 大韓民國憲法에 署名(議長)
- 七. 大韓民國憲法公布辭(議長)
- 八. 奏樂(高麗交響樂團)
- 九. 萬歲三唱
- 十. 閉會

(司會 李宜教總務局長)

(上午 十時五分 開會)

一. 開會辭(全奎弘事務總長)

本大韓民國國會는 五月 三十一日 開院 即時로 三千萬 民族의 自主獨立國家 再建에 對한 熱願과 世界友邦의 全幅의 支持下에 國家의 基礎인 憲法制定에 着手하여 六月 三日 憲法及 政府組織法 起草委員 三十人과 專門委員 十人을 選定하고 起草委員會를 組織하여 憲法을 起草케 하고, 六月 二十三日 憲法案이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後 議員 各位의 二十日間の 熱誠있는 討議로 말미암아 드디어 世界에 자랑할 만

한 民主主義 憲法을 七月 十二日 最短期間內에 滿場一致로 決議通過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이 大韓民國憲法 第九十八條에 依하여 이 歷史的인 憲法의 署名 公布式을 舉行하게 된 것은 實로 感激하여 마지 않는 바이올시다.

이 憲法公布와 아울러 昨十六日에 國會에서 議決通過한 政府組織法의 公布도 兼하여 이 자리에서 實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簡單히 開會辭로 하겠읍니다.

二. 奏樂

三. 愛國家奉唱

四. 國旗에 向하여 敬禮

五. 殉國烈士에 對하여 默念

六. 大韓民國憲法署名

(李承晚議長 大韓民國憲法에
署名함)

七. 大韓民國憲法公布辭(李承晚
議長)

三千萬 國民을 代表한 大韓民國
國會에서 憲法을 制定하여 三讀討
議를 正式通過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나 李承晚은 國會議長의 資格으
로 이 簡單한 禮式으로 署名하고
이 憲法이 우리 民國의 完全한 國
法임을 世界에 宣布합니다.

至今부터는 우리 全民族이 古代
專制나 壓制政體를 다 打破하고 平
等 自由의 共和의 福利를 누릴 것
을 이 憲法이 擔保하는 것이니 一
般國民은 이 法律으로써 自己 個人
身分上 自由와 生命 財產의 保護와
또는 國權 國土를 守護하는 것이
이 憲法을 尊重히 하며 服從하는
데서 생길 것을 覺悟하는 것이 必
要하니 一般男女가 各各 이 憲法에
對한 自己 職責을 다함으로 自己도
法을 違反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法을 違反하는 사람이 없도록 努力
할진대 우리 全民族뿐 아니라 우리
後世 子孫이 같은 自由 福利를 누
릴 것이니 이 날 이 때에 우리가
여기서 行하는 일이 永遠한 記念日
이 될 것을 證明하여 모든 人民이
各各 마음으로 宣誓하여 잊지 말기

를 付託합니다.

이 때에 우리가 한번 더 以北同
胞에게 눈물으로써 告하고자 하는 바
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中이라도
좀더 忍耐해서 하로 바빠 機會를
얻어서 南北이 同一한 工作으로 이
憲法의 保護를 同一히 받으며 이
憲法에 對한 職責을 우리가 다같이
分擔해서 自由活動에 富強增進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懇切히 바라
며 祝禱합니다.

○議長 李承晚 여러분들 많이 오서
서 이 盛大하게 이 簡單한 禮式을
이 重大한 節次를 다 行해 가니가
고맙습니다. 特히 外國親舊들이 여
기 와서 參與해 준 것은 고맙습니
다. 하-지中將閣下 아래 모든 軍
政官吏들과 또 UN代表들 여러분
들이 參席하신 것은 우리가 다 고
맙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參與함으로써 일이 榮光스럽게 되
고 또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中將이 우리 하는
일을 다 좋게 充分하게 圓滿하게
생각을 하시며 또한 우리 하는 일
을 다 自己들에게 榮光스럽게 받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八. 奏樂

九. 萬歲三唱

吳世昌氏 先唱으로
大韓民國萬歲三唱
憲法萬歲 三唱

○議長 李承晚 閉會합니다.

(上午 十時五十分 閉會)

立 議 2 年



姜 駿 遠

(협회 고문)

또하나의 입법기관 立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기관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立議」라고도 약칭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었다. 비록 미군정장관의 군령 118호에 의하여 창설한 것이지만 틀림없는 입법기관이었다. 그 의원수는 간접선거에 의한 민선의원 45명, 군정장관이 임명한 관선의원 45명,計 9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金奎植박사의 주축대로 좌우합작을 추진할 인사가 많이 임명되었다. 「立議」에서는 50여개의 법안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으며, 1946년 12월 12일 창설되었다가 그 2년후인 1948년 5월에 폐원되었다는 것이 東亞출판사刊 「새백과사전」에 기록된 내용이다.

기록은 남겨야

입법원에서 속기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내가 처음 들은 것은 46년 10월 어느날 명동에 있는 친구의 일가집에서였다. 나는 당시 조선통신 연락부장으로 있으면서 시내 모처에서 학원을 개설하여, 1936년 東亞日報에 본인이 창안·발표한 바 있는 조선어 속기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또 한편으로는 해방조국에 속기문화를 꽃피워 보고자 朴寅泰 金天漢씨 등 몇몇 친구들과 같이 한국속기학회를 구성하여 그 회장직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였다. 그 방송을 듣고는 곧 속기학회 회원들을 소집하여 의논을 하였다. 입법의원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정에 협력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민족 감정상 허락지를 앓는 것이었다. 여러가지로

토론을 거듭한 끝에 ①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고 기술이며, ② 누가 하든지 이역사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 ③ 그러니 기술연마도 할 겸 참여해 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하여 속기학회 부위원장 박인태씨하고 내가 당시 입법의원 사무국장 全奎弘씨를 찾아갔다. 全奎弘씨는 우리를 보자 이만저만 반가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송을 내보낸 지 1주일이 넘는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서 속기속달자는 물론 미속달자라도 균형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월급을 지급하고 학습실까지 제공할터이니 데려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장차 속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입법의원내에 속기사 양성소를 설치하여 줄 것과 둘째는, 속기사에게는 특별기술수당을 더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빨라지는 語速

그 뒤에 전규홍씨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개별적으로 속기를 연구하거나 연습하던 사람들을 다 같이 대우하여 입법의원 정식 속기사로 채용된 사람은 강준원 박인태 김일우 박선태 이종완 등이었다. 그리고 연습반에서는 김용환 서정근 최윤기 이수진 이인호 등이 속도를 연마하고 있었다.

당시의 속기방식은 일본의회의 속기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2명의 속

기사가 같은 발언을 20분간 같이 기록한 후 대조 번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速記長으로서 원고를 통독하면서 맞춤법의 잘못이나 속기문자의 불판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語速은 초기에는 기록상 별로 물리지 않았으나 점점 발언속도가 빨라져서 가끔 곤욕을 치르곤 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의 발언이 그러하였다.

한글 맞춤법도 모른 채

속기록 제1호가 인쇄되어서 각 의원에게 배부된 뒤 金奎植의장으로부터 한 가지 지적사항이 전달돼 내려왔다. 그것은 발언내용이 아니라 속기록 표현방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의석에서 「……라고 하는 著 있음」이라는 표현은 일본어적 표현이므로 「의원」이나 「분」이나 「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著 있음」이란 표현은 이때 한 번 쓰였을 뿐이고 이후에는 모든 회의록이 「이 있음」으로 통일이 되었다.

당시에 속기는 속기문자대로 쓰지를 않고 좀 생략해 보겠다는 초기적인 생각을 발휘하여 작은 동그라미를 「일광」 큰 동그라미를 「일기」라는 식으로 쓰다가 보면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일이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많았다. 또 이레-일흔-일곱, 여드레-여덟, 모레-모레같은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값오십량」은 「갑소십량」이 아니므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한글맞춤법을 다 잊은 상태에서 우리 말을 속기하려니

그 어려움이 여간 아니었다.

방청식은 한산

속기사는 書記局 서기과에 속하여 있었는데 나중에 서기과는 속기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처음에 속기사로 발령받은 사람은 모두 6명이었으나 그후 양성소, 연습생들 중에서 김학현, 김용식, 서정록같은 우수한 속기숙달자들을 계속 충원하여 13명으로 늘었다.

金奎植의장은 건강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尹琪燮, 崔東旽 두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보는 날이 많았다.

이때의 방청식은 의원석 뒤 2층에 마련되어 있었고 경위과 직원들이 방청인들을 담당하였다. 방청식은 자리가 차는 날은 별로 없었고 항상 한산한 편이었다.

회의 의제로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주도 농민폭동같은 군중이 난동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빈번하였고 소값을 안정시켜 달라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곤 하였다.

입법의원은 2년 5개월만에 문을 닫은 셈이니 큰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어이할 도리가 없었지만 이 회의체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선거법의 묘미를 맛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國旗좌담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중심에

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고 각 대각선상에는 건곤감리의 4괘가 배열되어 있다. 한데 사회 일각에서 이 태극기의 정통성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좌담회가 군정청에서 개최되었다. 그것은 좌담회라기보다는 설명회라고 하는 편이 옳겠는데 재야인사와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이들에게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 독립운동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모임이었다. 소위 외국기에는 없는 「국기좌담회」 기록이다.

약소국의 비애

당시 미소共委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하였는데 어느 날 신익희의원이 미소공위에 대하여 담소를 하자고 제의하여 여기에 기록원으로 따라간 적이 있었다. 金奎弘사무국장이 통역을 맡았는데, 요지는 미소공위의 정치적 행위가 한국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였다. 약소국민의 비애감이 북받쳐 올라와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무척이나 어려운 속기를 하였다.

속기석의 미인

金九선생이 흉한에게 돌아가신 지 3~4개월이 지났을 때, 일반 사회에서는 김구선생이 그렇게 된 것은 혹 군정의 하수인의 짓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떠돌고 있었다. 이에 군정청에서는 입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결백을

주장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영어를 통역하는 것이므로 우리 말 속기사와 영어 속기사가 같이 기록을 해야만 했다. 이때 영어 속기사는 군정청에서 데리고 왔는데 여자속기사였다. 보니까 Gregg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본인이 근무처가 어디냐고 물으니 군정장관실에 근무하며 나이는 26세라고 답하였다. 여인이 이런 데 나와서 속기를 하다니 남자도 아닌데! 하고 혀를 들릴 수밖에 없었다.

개소리라도 해!

1947년 12월 12일은 입법의원 창설 1주년 기념일이었다. 이 날 저녁 金奎植의장 주최로 입법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만찬회가 베풀어졌다.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웃음꽃이 만발한 가운데 여흥이 무르익어 가는데 崔東旼 부의장이 지명되자 자기는 아무 부릴 재주가 없다고 뒤로 빼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규식의장 왈 “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개소리, 쇠소리라도 내면 될 게 아닌가?” 하여 그만 모두들 呵呵大笑. 이에 崔부 의장은 마지못해 개소리(?) 한마디! 이제는 웃기던 분들도 웃던 분들도 대부분이 이 세상에 없으니 아, 인생의 무상함이어!

(필자; 이 훈 특허사무소 日·英 번역사)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회비납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좌(532689)를 마련했사온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1,000원(年12,000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의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速記業務의 自動化方案

金 基 英

(외국어 이사)

一. 序 論

요즈음 우리는 尖端科學技術의 발전에 따라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이러한 자동화 물결에 따라 퇴조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각광을 받는 직종도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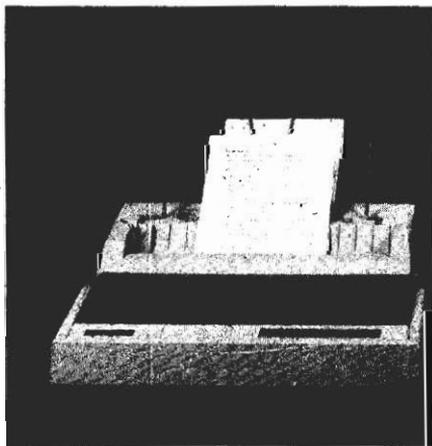
이러한 자동화 추세 속에서도 우리 속기업무는 아직도 수필속기, 수필번문, 활판인쇄의 手動化 作業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속기업무의 자동화는 결국 속기 번문 인쇄의 자동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완전한 속기업무의 자동화는 컴퓨터의 音聲認識이 가능케 되는 2,000년대에나 가야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고, 아직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완전한 의미의 속기업무 자동화를 이룩하여 실용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다음 단계의 속기 업무 자동화는 속기를 手筆에서 기계로 전환하고

번문과 인쇄를 자동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기계속기에 의한 원문을 電算 翻文, 印刷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불가리아에서 개발하여 실용화되고 있는 것이 있고 英語 日語圈 등 5개 言語圈에서 실용화를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는 Steno-Key가 있고 美國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Transcriptor V가 있다.

Steno-Key 나 Transcriptor V는 발



언을 속기사가 들으면서 바로 Key 를 치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번문 수록 프린트까지의 과정이 전부 자동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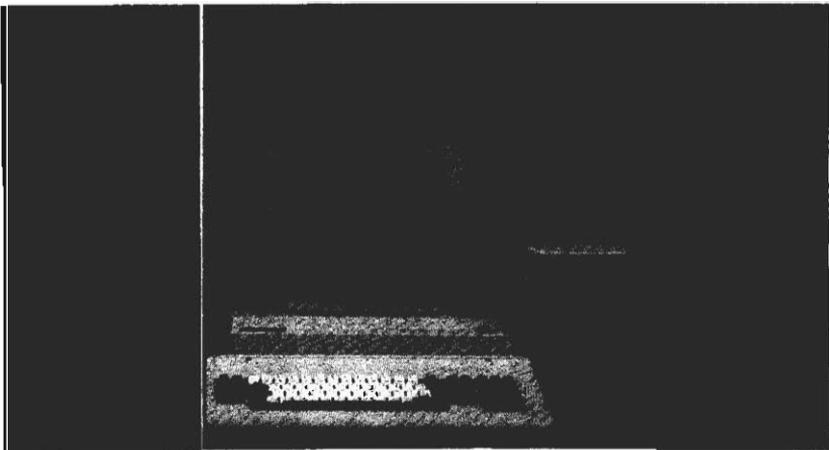
그러나 속기가 기계화되지 않은 경우 手筆速記한 것을 번문 편집 인쇄의 과정에서 Word Processor 를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현재 日本에서 실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용 가능성이 많은 속기업무 자동화에 필수불가결의 機器인 자동문서편집기(Word Processor)와 외국의 속기 업무 자동화 실태, 최근의 전산인쇄 System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二. Word Processor

1. 機能

Word Processor는 간단히 말해서 타자기의 불편한 점을 해소한 외에 보관 재생 인쇄 등 몇 가지의 기능을 추가한 현대 科學技術의 발전과 함께 기록분야에 새로이 등장한 電子式 자동문서편집기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文書作成, 編輯, 修正; 한글 英文 漢字 특수기호와 입력 삭제 등 각종 機能 Key가 있는 Key Board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 句節 문장의 삭제 삽입 訂正 移動 幅調整 등 編輯 修正作業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타자기를 사용할 때처럼 지우기 다시찍기 등의 불편한 점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두개 이상의 다른 Word Processor에서 작성된 문서의 복합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한글의 漢字轉換方式은 글자 하나 하나를 전환하는 방식과 單語別轉換, 文書內 同一 글자 또는 단어의 일시 전환 방식이 있어 매우 편리하나 아직 사용량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나. 文書保管, 再生; Key Board를 이용하여 작성된 문서는 Disk에 수록보관되어 필요시 화면을 통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다.

다. 印刷; 작성된 문서는 Printer에 연결하여 인쇄할 수 있으며 文字體 크기 행간격 문자간격 Page 번호 인쇄부수 등을 지정할 수 있다.

Printer의 종류도 다양하여 방식, 처리속도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부터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라. 通信; 작성된 문서는 각각의 Word Processor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연결되어 多者가 자기 다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量이 문서처리 보관 재생이 용이하다.

2. 構成

Word Processor는 각종 문서를 입력시키기 위한 Key Board와 편집 및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CRT-Display, 자료처리와 재생보관을 위한 Floppy-Disk, 문자와 기호를 인쇄하기 위한 Printer로 구성되어 있다.

3. 利用效果

가. 迅速發刊; 속기원문을 手筆로 번문한 것을 植字工이 식자하여 조판 하던 것을 Word Processor를 이용하

여 속기사가 직접 입력하여 원고를 작성하면 우선 번문시간이 절약되고 식자 및 조판시간이 절약되어 신속한 회의록 발간이 가능하다.

나. 經費節約; 조판비와 Word Processor Operator의 인건비가 절약되므로 발간비가 대폭 절감된다.

다. 保管 및 再生의 便宜; 회의록의 장기보관에 따른 장소 및 변질 훼손의 문제를 파일(File)에 담아 컴퓨터에 보관함으로써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회의록 더이속에서 색인 부를 찾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2~3분 내에 재생하여 볼 수 있다.

4. 市販機種

국내 市販機種으로는 三星電管의 N5,200 金星社의 장원, 큐닉스社의 으뜸글, 글마당시리즈, KAIST와 공동 개발한 고려시스템의 名筆시리즈, 한국 IBM의 IBM 5550등이 있으나 가격, 성능, 漢字變換方式, Printer의 방식, 처리속도, 문자체, 기억용량, 同機種間의 연결 가능성, 擴張性, 컴퓨터 端末機로서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三. 外國의 自動化 實態

1. 美國

현재 美國에서의 속기업무는 ① 수필속기→타자번문→인쇄→배부 ② 수

필속기→CAT→배부 ③ 기계속기→CAT→배부의 3단계 과정이 모두 실용되고 있으며 점차 CAT(Computer Assisted Transcription) System을 사용하여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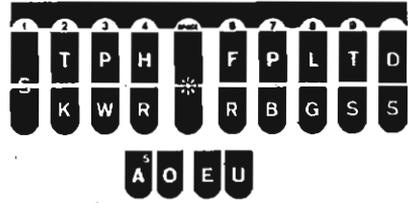
最近着 美國速記協會 기관지(月刊) NSR에 의하면 85년 8월 현재 CAT를 사용하는 속기사는 14,000명으로서 84년 5월의 9,500명에 비해 47%가 증가되었고 83년 8월의 6,000명에 비해서는 2배가 증가되었다. 이는 美國內 현역 職業速記士 약 28,000명의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1930년경에 Steno-type(速記打字機)가 실용되었으며 그후 수차 개량되었고 1976년에는 Baron Data社에 의해서 최초의 전자식 Transcriptor인 Steno-Type가 개발되었다.

Steno-Type는 Touch-Shorthand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속기타자기 혹은 기계속기라고 한다. 기계속기는 건반식으로 數個의 Key를 동시에 칠 수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회의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한번 Key Board를 눌러줌으로써 종이 Tape 위에 한 單語나 單語群을 찍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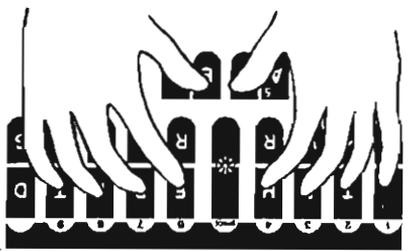
찍혀진 原本은 부호화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다시 Typing을 하여왔으나 이제 CAT System을 이용하여 普通文字化함으로써 속기업무를 자동화시키고 있다.

현재 美國內에서 Steno-Type나 CAT System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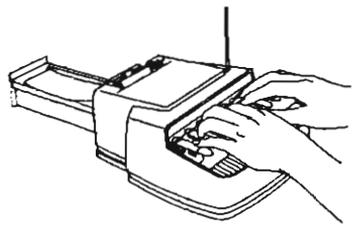


key board

Space좌측 : 조성자음
Space우측 : 종성자음
Space하단 :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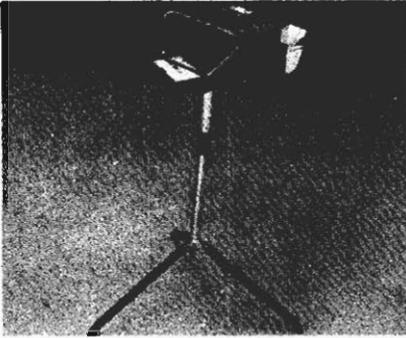
正 位 置



속기타자기

회사는 Stenograph社 Xscribe社 Baron Data社 Micro CAT社 등이 있다.

Baron Data社에서 최근에 개발된 Steno Type인 Transcriptor V는 종이 Tape뿐만 아니라 카세트 Tape에도 기록이 보관되고 最長 12시간까지



Transcriptor V

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된 원문을 번문 편집 Print하는 CAT로서 Baron Data社의 Megacenter는 한 장의 Disk에 12,000 Page를 수록할 수 있으며 동시에 8명 내지 12명의 속기사가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4반세기 동안 國際速記打字聯盟(INTERSTENO) 회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同聯盟의 제36차 총회를 85년 7월에 수도 소피아市에서 개최하는 등 東歐圈국가이면서도 속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國立速記研究所를 중심으로 속기 분야의 과학적 연구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식 기록방식에 관한 국제적 공헌으로 Steno-Key를 개발하여 속기업무 자동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가리아가 자기 나라 고유의 창안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Steno-Key는 한번 (One stroke)으로써 한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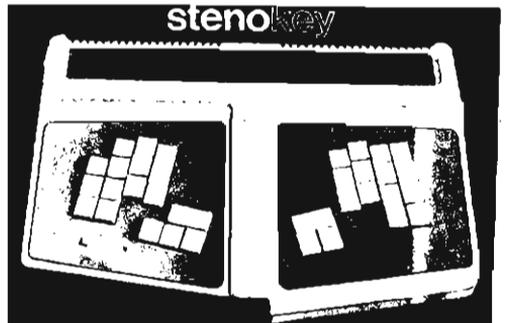


Megacenter

節 單語 또는 句가 기록되고, 출력되는 字體는 곧바로 사용될 수 있는 보동文字로 나타난다.

Steno-Key는 英·日語등 5개 國語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Operator는 3개월내지 6개월 훈련으로 숙달된다.

Steno-Key는 Word Processor, Personal Micro-Computer, Printer와 함께 작동되며 속기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많은 量의 일을 처리하는데 유용하여 의회 법원 언론 대학 회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속기업무 이외에도 각종 기록업무 활용되고 있다.



Stenokey

3. 日本

日本에서는 1978년에 Word Processor가 선을 보이기 시작하여 1985년 4월에는 24個社에서 36종을 발매하고 있다. 속기사들이 Word Processor를 이용하여 속기업무 자동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이며 現業 속기사의 60%가 이미 소지하고 있고 1986년에는 85%가 소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5년 5월 12일 일본상공회의소가 Word Processor 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였는바 15,000명이 참가하였다.

東京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기사는 3,000명이며 국회 법원 등의 관청 언론사 기업체 등에 소속한 1,800명외에 1,200명이 自由業으로 速記業務所를 운영하고 있다.

四. 電算印刷

속기사가 Word Processor를 직접 이용하여 속기업무의 자동화가 이룩되려면 속기사들에게 그만큼 숙련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바 그동안까지는 속기사가 번분한 원고를 Operator에게 주어서 입력케 함으로써 인쇄과정만이라도 전산화시켜 신속한 발간을 할 수 있다. 전산인쇄란 인쇄과정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소요되는 조판과정을 Word Processor를 이용하여 電算寫植組版하여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전산인쇄는 짧은 시간에 많은 량의 인쇄를 해야 할 경우에 아주 적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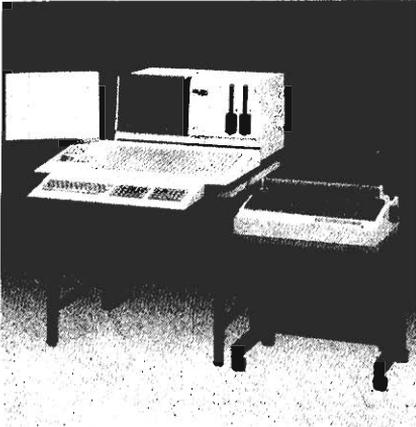
인쇄방식으로서 서울 신문사 韓國日報社 朝鮮日報社를 비롯한 언론기관과 東亞出版社 三和印刷社 등에서 이미 전산화 System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전산인쇄는 급속히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

2급 打字實力者에게 1개월 정도 훈련시키면 1시간에 원고 30매 내 40매를 입력시킬 수 있고 1일 8시간 근무에 5만字를 입력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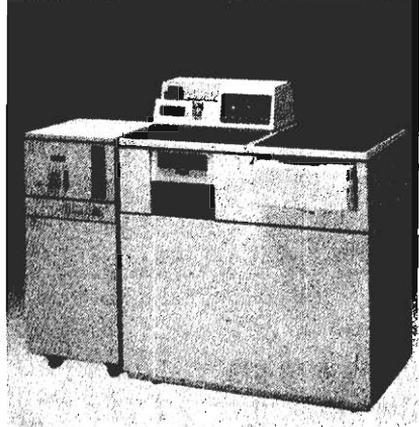
日本 MORISAWA社의 電算寫植 System을 예를 들어 전산인쇄기기에 대해 살펴보면 入力機 MK-11H는 230만엔이고 校正入力機 MK-110H2는 400만엔인바 校正入力機에는 화면이 있고 입력 교정 편집을 할 수 있으며 교정입력기 1대에 입력기 3대가 같이 일할 수 있다.

입력과 교정이 끝나 DISK에 수록된 내용은 出力機에 보내서 원하는 字體와 글자크기 段 行數 등을 지정하며 1시간당 18만字를 印書紙에 출력하여 입력기 30대분을 처리할 수 있다. 출력기 202ET는 8인치 印書紙를 사용할 수 있으며 3,500만엔이고 202EWT는 12인치 印書紙를 사용할 수 있으며, 4,000만엔이다. 출력기에서 나온 인쇄지는 自動現象機에서 1시간당 18만字 Film 5m 까지 현상하여 組版이 완료된다. 現象機 Hope는 12,000弗이다.

조판이 완료되면 마스타인쇄 음세 트인쇄 平版印刷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인쇄하고 製本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교정입력기 MK - 110H2



출력기 202ET·202 EWT

五. 結 論

속기업무의 자동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전산인쇄를 통하여 현재보다 빨리 회의록을 발간하는 일이며, 다음에는 속기사들이 Word Processor를 이용함으로써 2~3배의 속도로 번문을 완료하고 (1시간당 수필속기시 원고 10~15매이나 Word Processor 사용시 30~40매) 畫面을 통하여 편집 교정이 자유롭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필요시 재생 열람이 손쉬워 수요자에게 만족감을 배가시켜 주는 등, 잇점이 많은 자동화 단계로 접어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속기의 기계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하여는 그 試製品을 개발하는 데만 2년의 기간과 3억원 정도

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가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속기의 기계화에 의한 자동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속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속기의 완전 자동화 단계인 音聲文字化컴퓨터가 출현한다면 속기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녹음기의 출현으로 속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나 녹음만 하는 경우 Tape를 보관만 해 둘 경우는 모르겠으나 필요한 부분을 열람코자 할 때 녹음한 시간만큼 걸려서 다시 들어보아야 하나, 속기를 한 경우라면 간단히 찾을 수 있고 要約도 가능하다.

또한 속기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이 가능하나 녹음의 경우는 휴대가 불편하고 경비도 비싸게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녹음한 것은 결국 속기사에 의해서 일반문자화 되어야 일반에게 널리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녹음기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속기는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녹음기의 도움을 얻어 어려운 專門用語, 불확실한 外國語 등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속기록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속기업무가 편리해지고 일반사회에 속기수요를 증가시켜 이제 녹음기는 속기사에게 없어서는 안될 利器가 되었다.

더구나 이제 Word Processor가 속기업무에 도입되면 번문작업이 종래보다 상당히 능률이 오르게 되어 보다 신속하게 회의록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의 재생 열람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속기의 效用性을 제고시켜 줄 것이고 따라서 속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音聲認識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의 말이 그대로 문자화되면 그것이 속기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쓸데 없는 것이 많고 잘못 말하는 경우도 많다. 말은 文章化하는 단계에서는 워니워니해도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며 상황 파악, 發言者의 이름 확인, 圖表의 설명 등 음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 것은 단지 말을 듣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웅성거리는 잡음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잡아서 기록하는 등 회의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기계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계는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사용되어진다면 이는 곧 인간의 滅亡을 의미하게 되므로 첨단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편리한 문명의 利器는 우리가 많이 이용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共同作用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피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속기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弁—하나(I)

金 銅 洙(재미회원)



세월의 덧없음을 느낀다는 것은 그 세월의 가치가 무의미했었기 때문이라는 글귀가 새삼스레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의 지난 13년여의 속기인 생활이 결코 무의미한 세월만은 아니었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하여 준 귀중한 삶의 점철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울안에 뛰어 들어 소년시절의 꿈과 피리되는 현실 앞에서 한 겹 표피를 벗어야 했던 아픔과 함께 사회생활—인간생활의—뉘를 조금이나마 터득한 것도 같으니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의 제목을 “弁—하나(I)”로 한 것은 회고 겸 제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정말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표출해 보고자 함이니 외람된 文句가 있더라도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議政의 변모와 그 軌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속기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정치의 場의 안팎에서 웃고 울면서 이 시대의 역사의 기록자라는 뿌듯한 긍지를 가졌었는가 하면 신속·정확

의 모토 아래 秒를 다루는 선과 획을 굵다 보니 어느덧 小心 아닌 狹心症(?) 환자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속기사를 쟁이(?) 비슷한 취급을 하는 忽待를 받을 뻔 분개는 무념으로 그리고 이의 탈바꿈에 안간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제 탈바꿈이라기보다 (사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의 삶의 길을 택한 시점에서 일말의 불안과 함께 선택의 기대에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사가 보수와 혁신 사이를 왜 끊임없이 오가며 방황하고, 하는 중인가 하는 사실이 실감나게 투영되어 오는군요.

다시금 回歸의 본능을 아로새기면서 會者定離가 필연인 것처럼 내일 또한 오늘이 되는데 當然이니 “만남”의 의미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한데 묶어 과거의 우리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만남의 관계를 승화시킨 “우리”라는 틀 속에서 제 자신 苦樂의 맥락을 통하여 흘러 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듬어 보면서—저의 속기인 생활이 한 간이역에서의 쉬임이 아니라 귀중한 안식처에서의 평화였으므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Follow Your Dream”라는 팝송에

서 아들과 아빠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선지자·성인이 아닌 한낱 범부이기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人生流轉으로 오히려 꿈만은 마음껏 그 나래를 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일말의 불안을 안고서도 “스스로의 힘에 겨운 튼가튼 시도하다가 파멸한 자를 나는 사랑한다”는 니이체의 말을 감히 따르려 하고 보이잖는 정상울 향해 어제와 오늘의刻畧를 거울삼아 실현가능의 계단을 오르려 합니다.

또한 밀래의 「이삭줍기」에서 보여주는 자연과 신과 생에 대한 경외심을 안고 사노라면 행복한 삶을 영위 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정들었던 우리의 둥지를 떠나갑니다. 제가 가는 저편 둥지는 얼마나 따스할는지 가슴을 짓누르는 別離의 아픔과 함께 반감이 교차합니다.

먼훗날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눈부신 발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간의 여러 선배·후배님들의 보살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 하는 文句로 마음을 맺으며 졸필을 놓습니다.

“이제도 그 어느 때도, 그리고 영원토록…….”

(1985年 9月 6日 밤에)

40년만의 재도전

金 容 漢(한외사)



“갈갈 걸걸 골골
굴굴……”

“할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응, 그게 그것
이야”

“그게 댜데?”

“속기란다”

“속기?”

“가만 있자 요놈의 「굴」자에서 꼭
연필이 부러진단 말이야”

“어서 주무시기나 하세요. 밤낮 그
놈의 골골굴굴……”

손자놈이 옆에서 킁킁거린다. 이래
저래 마누라 핀잔을 받아가며 3주간
을 용케도 끝마쳤다. 하면 된다는 신
념으로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하듯 젊
은이들 틈바구니에서 기어이 해 낸
것이다.

“하면 돼. 암 하면 되고 말고.” 나
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1945년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어 온 천지가 환호
의 물결 속에 소용돌이칠 때 왜놈들
이 버리고 간 시커먼 휴지같은 대다
인쇄된 「해방속기」가 저자 「이동근」
이란 이름으로 나온 책자가 있었다.

우연히 책방에 들렀다 책을 펼쳐보니 마치 지렁이가 기어간 자국 모양의 것이 요리조리 뻐뻐뻐뻐 우스꽝스러워 호기심 많은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이라 그때 10원인가 주고 사다가 책장에 끼워놓고 심심하면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인채도 엉망이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어떤 글씨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해방”이란 이름이 마음에 들어 소중히 간직했던 일이 아스라히 생각이 난다.

물론 당시에는 학원이나 지도강사는 전혀 없었고 무조건 배우고 싶으면 독학 일변도였다. 이렇게 해방과 더불어 고고의 **궤**과 함께 탄생된 해방속기는 동방속기로 개칭하여 면면히 그 명맥을 이어온다.

어언 40년의 그 술한 풍진 속에서도 세월은 흘러 지금은 고급지로 인싸되어 버젓이 학원에서 재치있는 강사손에 배우고 있으니 금석지감을 금할 길이 없다. 어느 때인가 동방속기 강습을 한다는 신문쪽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보니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전화를 걸기는 걸었으나 “이제는 틀렸어 내 나이 60고개를 넘은 머리에 괜히 주착없이 전화를 걸었나 보다”하고 망설였다.

“속기라니 안될 말이지.” 부정해 놓고 청량리 맘모스앞 오서울건물 계단을 오른다. 1층 2층 3층 4층 5층 끝이 없다. 이젠 숨이 차다 100미터는

원 셈인가, 다리가 떨리고 가슴에선 두방망이질을 한다. 딱 가로막는 문쪽에 「동방속기 무료강습소」라는 광고문이 매직으로 요란스럽게 이리저리 붙어 있다. 특히 무료라고 쓴 대목에 힘을 주어 썼다.

“음! 무료라 그것 매력있는 걸. 그렇다면 나도 자리가 다 차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지.”

덤그러니 교실 한가운데 험스럽게 생긴 젊은 청년이 앉아 공손히 맞이한다. 그 주위에는 의장석이니 기자석이니 하는 팻말이 놓여 있어 이전 마치 기자회견석에 방청하러 온 촌로가 되어 버렸다. “나 천호동에서 온 김용한이란 사람입니다. 나같은 사람도 속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배우실 수 있고 말고요.” 하면서도 아직도 계단 올라 오느라고 숨을 헐떡이는 나를 보는 청년의 눈에서는 집에서 손자나 보시지 될 속기를 하신다고 쫓쫓쫓……하는 듯 물끄러미 쳐다본다.

화제를 바꾸어 “내 40년 전에 해방속기를 독학한 적이 있소. 그런데 다 잊어 버렸소. 그래서 다시 배워 볼까 하는데……”하고 어물어물 눈치를 본다. 답은 물론 하시면 되십니다 할 것이 뻔한 것인데 그 소리가 듣고 싶어 되풀어 본다.

그럭저럭 이야기가 끝나니 책 한 권을 내어준다. 솜털주머니에서 우리 마누라가 꼬깃꼬깃 끼워 준 용돈을

꺼내 수속을 끝마치고 아까 오르던 계단을 되돌아 내려온다. 그리고 생각한다. “5층짜리 건물의 5층이라…… 돈이 없어 꼭대기에다 언었을까, 아니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인가?” 내 발은 벌써 평지를 걷고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질량의 법칙을 목욕탕에서 알았다더니마는 오서울빌딩 계단에서 배웠는가 그렇게 험뻍험뻍 오르던 계단이 내려올 때는 이렇게 편하다니. 어려움과 수월함이 엇갈리는 현상이다.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빙판길을 가슴을 펴고 걷는다.

머리맡 달력 1월 13일자에 나는 「속기돌입」이라는 네 글자를 큼지막히 써넣었다. 3주고지 점령의 포화가 40년만에 터지는 순간이다.

해방 속기에서 이동근선생은 이렇게 적고 있다. 「속기란 일도 연습 이도 연습 삼도 연습이다」라고

어느 때는 정신없이 오르다 옥상문까지 갔다 되내려오는 촌극까지 겪었다. 무작정 오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교훈일까. 어떤 사람은 1급 속기사가 되는데 자기 키의 1.5배의 연습지를 소모시켰다고 한다. 하기사 저 유명한 세잔느는 작품을 내는데 땀상용지가 창고로 그득 찼었다 하니 속기창조와 미술창조는 같은 예술작품인가 보다. 나도 내 키만큼의 연습지를 써야지 그래서 1급 속기사의 칭호를 받아 보아야지. 꿈일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간 짧은 기간이라 옆 사람의 얼굴조차 익히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못내 아쉬웠으나 그래도 그 틈바구니에서 수료감상문을 내어 명강사 돌베 선생으로 부터 격려와 학우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갑자기 젊어지는 것같이 기분이 꽤 좋았다.

돌베의 묘한 이름은 수료식날 “친호동에서 온 김용한이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로 시작하여 돌베의 고향 마산에서는 돌을 돌베라 하여 애항심이 강한 선생의 별명을 돌베로 하였다는 해명과 설명이었다.

돌베선생의 강의는 언제나 유-모아와 윗트가 넘친다. 한번은 좀 지루한 눈치를 챈 돌베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차장! 이놈의 똥차 왜 안떠나는 거야?”

차장 답변왈 “똥이 차야 떠나죠”

강의실의 피곤은 사라지고 장내는 폭소로 변한다.

젊은이들과 시대감각을 같이 하면서 잠시나마 같이 지낸 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껌껌판판떨떨을 적어 나간다.

마누라 손자가 깔깔대고 웃는다.

대한속기협회 회장님이 주신 수료증을 다시 한번 만져본다.

1986년 2월 2일

夜 光 虫

安 基 喆

이 밤도 不眠이다. 문득 매일 밤을 이토록 하얗게 머리맡을 밝히는 작은 전기스탠드가 유난히 가련해 보인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새벽을 재촉하는 듯 스탠드가 가끔씩 깜박거린다. 아마도 스물일곱의 초라한 밤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이 이제 힘에 겨운 모양이다. 생각하면 지난 몇해 동안 이 좁은 四角房에서 밤에만 반짝이는 夜光虫같이 꿈틀거리며 살아 나는 알량한 내 想念의 녀두리를 정말 무던히도 들어 주었다. 때로 사춘기 소녀의 송털 보송보송한 얼굴로 가는 목을 길게 베고는 삶과 예술과 그리고 아련한 사랑 이야기들을 방안 가득 쏟아 놓아 나를 想念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 이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맞게 하고 때로는 까닭없이 외로운 밤 그리운 이에게 戀書라도 쓰려 하면 그저 방구석에 암전히 비껴 앉은 채로 한마디 길투도 없이 그것이 글을 위한 글, 말을 위한 말이 되지 않기를 염려의 눈길로 지켜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큰길 車소리마저 뜸해진 지금 저릿하게 매운 겨울바람의 손끝이 창틈을 비집는 소리에 1월의 밤은 더욱 데카

당트하다. 더듬어 담배 한 가치를 입에 문다.

스탠드의 여린 螢光 사이로 한 줄기 悲哀가 피어 오른다. 담배 연기처럼 공허한 것이 또 있을까? 虛無의 파르스름한 實體, 그 속으로 하루는 낡은 영화의 뿌연 스크린처럼 아스라히 스쳐지나가 아쉬움의 재만 어설피 쌓여간다. 나는 Dada와 같은 言語 조각들을 방바닥에 어지럽힌다. 목구멍에 가득 찼던 결죽한 불만 덩어리 육지거리들이 치밀어 오르고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편린들마저 머리칼을 흐트러 놓으면 나는 알콜 부족의 渴症 또 渴症……. 목이 말라 하면 스탠드는 엉뚱하게 마법사로 粉하여 두껍게 가린 커튼 위로 파리의 晚秋를 보여 준다. 억만의 密語와 사연을 담은 푸른 눈의 연인들 뒤로 나의 모습도 보인다. 검은 눈을 반쯤 뜨고 時空의 나들이를 위해 덜 여문 내 영혼을 싣고 다니기에도 불편한 몸뚱아리에서 빠져나오는 나. 그리하여 제일 먼저 시지프스의 잘 단련된 어깨근육을 탐내는 멍청함 멍청함…….

뒤통 너머 공터에 매인 늙은 개가 다시 앓는 소리를 한다. 순간 방귀통이 먼지 속에 쳐박아 놓은 靑春의 始末書 더미 속에서 속기문자들이 슬금 슬금 기어나온다. 피할 수도 없이 꼭 주사침같은 20mm 長線文字가 이불자락을 들추고 엉덩이를 푹 찌른다. 나의 혈관으로 스며드는 용액은 어떤

處方藥일까?

올챙이 속기사의 한 마디

李 在 鉉

나에게 지난 봄은 참으로 가혹한 계절이었다. 속기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후 새로운 세계에의 적응은 시간감각을 둔하게 만들었다. 문득 지금의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는 벌써 발령받은 지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음에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반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무척이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것 같다. 속기를 배우면서 출몰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국회, 안개 속에 싸여 결코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곳에서 정기국회도 한 번 치렀고 속기인 체육대회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망년회를 거쳐 새로운 해를 맞이한 것이다. 그 동안 보다 완벽한 속기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속기라는 것은 한 마디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인 것만 같다. 특히 시험을 대비한 속기와 실무속기의 차이를 어렵듯이나마 깨달고부터는 나의 미숙함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껴졌다. 시험을 대비한 속기와 실무속기의 차이점에 대

해 몇가지 느낀 대로의 생각을 적어 본다면,

첫째는, 시험을 위주로 한 속기는 내용의 변동에 관계 없이 틀린 글자 수만 체크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무속기는 글자가 틀리지 않아야 함은 물론 중요한 것은 내용이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속기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그것은 각 전문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습득으로써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험의 경우는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시간 당독해 나가지만 실무는 일정한 속도가 없고 어느 순간은 굉장한 속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속도는 대부분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억력을 십분 활용해서 느린 속도로 되돌아 왔을 때는 미처 못 따라 쓴 나머지를 기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시험의 경우는 한 사람의 음성으로 계속되는 표준말 낭독이어서 억양과 발음이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발언자마다의 독특한 음성이나 발음, 게다가 각 지방의 사투리나 전문용어 신조어 등이 뒤섞여 나온다. 따라서 속기교육과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두서 없는

대화체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네째, 실무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화 도중에 말에 혼선이 생겨서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실무의 경우는 각 상황에 따르는 원고작성상의 일정한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시험의 경우는 기록한 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바로 본문에 들어 가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이 폭주할 때 기록한 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됨으로 해서 본문시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보다 정확하고 능숙한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율 책이 속기사로서의 당면과제가 아닌 가 한다.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리라. 누워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생각도 안이하기 그지 없는 사고방식이다. 틈틈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겠다. 다음번 입시 국회에서는 좀더 완벽에 가까운 속기를 해 보리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 본다.

내가 택한 길

최 윤 정

학생들의 긴 겨울방학이 끝나는 이맘때면 언제나처럼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학생시절엔 한 학년 진급하면서도 자신없는 前학년의 학과가 못내 걱정스러웠다. 그레도 상급학년으로 진학할 경우엔 만회할 기회가 있어 나왔다. 대학 4학년의 겨울방학은 실제로 방학이 아니고 그대로 사회로의 방출을 의미한다. 곧바로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16년 동안 길들여진 소속감을 상실하고 당황하게 된다.

그해 겨울 대중 「아무곳」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실망하고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었다. 우연히 속기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강습소를 찾아 국회속기사양성소에 원서를 냈다. 입소할 때까지도 이 기관을 국회속기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착각한 채로…… 그 후 이곳은 단지 국회에 있는 속기사 양성소임을 깨달았다. 내가 택한 길이 너무 힘들고 성공할 확률도 적은 구멍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한편으로 망설이고 한편으로 속기가 지닌 어쩔 수 없는 마력에 끌려 하루하루를 지냈다.

신속과 인내, 이것이 우리 입소생

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었지만 실제로 나는 임기응변과 오기를 습득한 것 같다.

입소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 인원의 반 이상이 탈락해 나갔다. 사실 나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속기의 재능을 타고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잘 참고 견디느냐. 누가 더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티고 이기느냐, 이것이 수료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수료를 하고 1주일마다 5자씩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는 약간씩 신경이 날카로워져 갔다. 「3월이다」 「4월일 것이다」 「5월이란다」 채용시험일자에 대한 구구한 설이 나돌고, 조금씩 조금씩 미루어져 가는 시험예정일을 들으며 이름 모를 불안으로 이유없이 화가 나고 울고 싶어졌다. 휴게실에서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시간을 죽이는 대신 차라리 기도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오기도 했다.

채용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하고, 시험보기 전보다 몇 배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첫 출근일을 기다리다 정말 우연히도 생일에 첫출근을 하였다. 그것이 벌써 5개월 전의 일이다.

128회 정기국회를 눈치로 넘기고 이제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속기를 배우고 시작된 2년이 이렇게 후

딱 지나간 것이다. 그 동안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뻔한 순간 순간들을 기억한다. 이 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있을 것인지,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상상하더라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길을 통해 나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뿌연 한강다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R. 프로스트의 시 한 귀절이 떠오른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낸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태진상사

철근일체, 앵글전문

대표 이상호

성동구 군자동 29의 2
466-7721~2

속기계 이모 저모

1985. 2—1986. 1

섭 외 부

○朴權欽회장, 12대국회의원 당선

85. 2. 12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후보로 출마한 본협회 朴權欽 회장께서 총 7만 7,164표의 득표로써 금메달 당선

○海外出場

1. 姜宗遠회원(85. 7. 12~8. 20); 미국뉴욕주립대학교 연수
2. 朴保和 柳智永 李潤和회원(85. 8. 12~8. 22); 의회제도시찰(홍콩→중화민국→일본)
3. 李承哲회원(85. 8. 17~9. 9); 중화민국(국제정년育樂營참가)
4. 姜瑞弘회원(86. 1. 15~4. 14); 일본의회 예산결산 및 의사실무 연수

○昇 進

1. 李東一회원; 내무위원회입법조사관→감사관(85. 2. 28)
2. 金善弼회원; 속기과→속기계 4 담당(85. 3. 1)
3. 張淑卿회원; 도서관사서→도서관정간자료과비도서자료담당(85. 3. 1)
4. 柳舜台회원; 한국생산성본부홍보과장(86. 1. 23)
5. 李起同회원; 포항제철냉연판매부장(85. 12. 30)

○轉 補

1. 金永善회원; 경제과학위원회→상공위원회(85. 3. 1)
2. 徐秉運회원; 해외자료과→경제과학위원회(85. 3. 1)
3. 金基英회원; 의전과→속기계 1 담당(85. 3. 1)
4. 金致元회원; 의안과→국회운영위원회(85. 3. 1)
5. 宋基喆회원; 속기과→의전계 2 담당(85. 3. 1)
6. 河良培회원; 자료발간계 2 담당→제본담당(85. 3. 1)
7. 崔滉洙회원; 속기 3 담당→의사 1 담당(85. 9. 9)
8. 黃寅河회원; 의사과→내무위원회입법조사관(85. 9. 9)

○表 彰

- 申世華회원; 대통령근정포장(86. 1. 4)
朴光澤회원; 국회사무총장표창(86. 1. 4)

- 高在欽회원 ; 〃
 任哲淳회원 ; 〃
 高用培회원 ; 〃
 鄭宇鎔회원 ; 〃
 崔性周회원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사무총장표창(85. 12. 31)
 朴正鎬회원 ; 〃
 金善玉회원 ; 〃
 鄭大吉회원 ; 〃
 李承姬회원 ; 〃

○1985. 6. 12. 시행된 국회속기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 李在鉉(고려) 洪銀珠(동방) 崔允禎(의회) 張美京(의회) 4명이 합격하였음.

○퇴 직

- 羅性洙회원 ; 동해펄프비서실로(85. 4. 3)
 金銅洙회원 ; 美國移民(85. 9. 2)
 金正德회원 ; 대한병원협회 주간병원회보로(86. 2. 11)

○결 혼

朴貞子회원(85. 7. 5) 申建鉉·鄭珠鉉회원(85. 9. 22) 尹相靄회원(85. 12. 21) 柳會然회원(85. 12. 28) 孫淑子회원(85. 12. 28) 李淳英회원(86. 1. 4)

○제13회 전국속기인체육대회가 85년 10월 9일 경기도 안성소재 한일은행 연수원구장에서 약 250여명의 속기인과 가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속기무료강습

제36회 동계무료속기강습(85. 1. 4~2. 2)과 제37회 하계속기무료강습(7. 22~8. 10)이 서울의 동방 고려 양학원에서 각각 실시되었는바 그 수강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계 ;	국어	661명	영어	173명
하계 ;	국어	263명	영어	91명

회무일지

—1985년도—

1. 4~2. 2	제36회 동계속기무료강습
3. 13	제125차 이사회
3. 23	제18회 정기총회
4. 11	제126회 이사회
4. 30	법인정기보고서제출(문화공보부)
7. 9~26	제36차 국제속기타자연맹총회참석
7. 22~8. 10	제37회 하계속기무료강습
7. 3	임원취임등록(법원)
12. 26	제127차 이사회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關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渉外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渉外部 Tel 7802-2473, 2475

④ ③ ② ①

◎이번호에는 인터스테노 총회를 특집으로 꾸며보았다. 우리 속기계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부터는 국제사회속에 한국속기를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아 오리라고 기대해본다(珠).

◎원고모집의 어려움에서부터 총회시간에 맞추기까지 꽤나 피곤했던 작업이었다. 그러나 막상 손을 털고보니 무언가 뿌듯한 결실이 느껴진다.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杓)

◎어느덧 스물여섯번째의 속기계를 내게 된다. 성년을 이미 지나 벌써 여섯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언가 변화를 추구해 보고자 노력하고 싶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쉬움과 조마조마한 마음뿐이다. 회원 제위의 아낌없는 질타를 기다려야 함이 당연하리라 생각한다.(承)

速 記 界		第26號	
.....			
1986年 3月 8日 發行			
發行人	朴	權	欽
編輯人	李	承	哲

社 團	大 韓 速 記 協 會		
法 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女矣島洞 1-1			
Tel : 7802-2471~6			

非 賣 品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속기사 전문교육처 고려

※ '48년 창안 발표된 국내 最古의
정통속기법 교육처!

※ 대통령령 제10802호에 의거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 지도...안정근(고려속기학 편)
International Stenographers Association(美)

속기의 활용

회의 취재 강의 재판 비서
집담 구술 설교 방송 군대
중언 일기 비밀기록등

서울·서대문구 충정3-189 신원BD
☎ 392-5373 312-9489

춘천 52-9714 대전 72-3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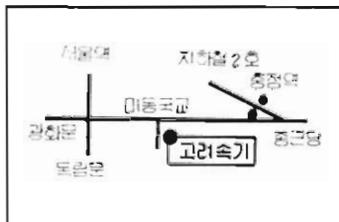
청주 4-1438 광주 232-4363

취업처

국회, 시법부, 행정부, 은행, 대사
관, 외국인상사, 언론기관, 무
역업체 및 국영대기업체 등

특 전

-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 속기사로써의 우선취업
 - 부업(시간당 10~15만원)알선
 - 수강료(20~100%)혜택



관인

동방속기학원

☎ 765-4266
수원분원 5-4944

✻ 창립 38주년

- ♣ 우리나라 최고의 속기사 사설양성소
-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지정양성기관

한글속기과

- 1. 분 과—4개월
- 1. 연 수 과—1년
- 1. 자 격—고졸이상

영문속기과

- 1. 분 과—3개월
- 1. 연 수 과—6개월
- 1. 자 격—고졸이상

수료후

입법부, 법원, 각 관공서, 각 언론기관, 각급 속기병, 외국인
상사, 유학시의 필기 및 아르바이트 등 고급취직으로 사회진출
용어.